

보살의 길

2012년 겨울호 제51호



12월 20일 박원순시장님 방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계사(癸巳)년을 맞이하며

존경하는 후원자님,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세월은 지난해의 못 다한 아쉬움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기다려 주지 않고 비켜 갔습니다.

지난해는 나라에 큰일들이 많아 동분서주 했을 것입니다.

불경기로 인해 서민들에 생활의 어려움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에 고통을 받았고, 생활은 팍박해지고 사회는 도덕과 윤리가 상실되어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한 대선으로 인해 상반된 이념과 갈등으로 혼란이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는 이런 일로 해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 임진년의 혼란과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한 발짝 발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이 뽑아준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대통령이 되신 지도자는 분열과 혼동으로 갈등하던 국민들을 서로 소통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부에 힘을 보태어 부강한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석근관지(釋根灌枝) 즉, 뿌리는 내버려 두고 가지에만 물을 주는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민이 하는 말을, 무청지이이(無聽之以耳), 이청지이심(而聽之以心) 즉,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만족함을 알아 욕되지 않고, 그칠줄 알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 길이 오래도록 편안할 수 있다”는 노자(老子)의 말을 경청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열매를 골고루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고, 모든 자녀에게 공평한 도전의 기회가 보장되기를 소망하며, 소외된 계층에게도 삶의 희망과 빛이 나누어지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계사년의 소망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후원자님!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지난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혜명양로원의 어르신들에게 나눔의 덕을 베풀어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혜명양로원 임직원과 어르신들은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같이 있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계사(癸巳) 원단(元旦)

혜명양로원 원장 박재근(현성) 합장

손끝으로 만드는 행복세상

- 숲지기 강지기 -

손재주가 없어 할머니를 가르쳐 드린다는 게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한번하고 느낀게 역시 할머니들께서는 바느질 솜씨가 예스럽지 않으셔서 오히려 내가 배울 수 있어 하는 동안 흐뭇했다. -한수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에 양로원에서의 모든 활동을 마치고 할머니들과 많은 정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기뻐다. 항상 할머니들께서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행복했고 감사드립니다. -유은주-

처음으로 양로원이란 곳에 와서 설레임으로 할머니들을 뵈었는데 너무 밝으시어 외할머니 같은 정겨움을 느꼈다. 더 신기한 것은 내가 다니는 도선사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혜명양로원이 더 가깝게 느껴지어 수업내내 즐거웠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할머니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빈다. -김임예-

처음엔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에 부담을 느끼며 왔는데 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며 즐겁고 뿌듯한 마음으로 항상 집에 가곤했어요. 부족한 솜씨인데도 항상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뵈며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겠다는 생각으로 오곤했습니다. -김희선-

바느질하는 내내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처음엔 많이 염려스러웠던 맘이 마지막인 오늘은 뿌듯함과 은근한 기쁨 또한 생겼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옥-

7월, 무더운 여름 혜명양로원에서의 할머니들의 만남은 긴장반 설레임반 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따뜻함과 인자하심이 첫 만남을 그리움으로 만들어 주셨다. 어떤 만남이든 소중하다. 할머니들에게서 매주 좋은 기운을 얻어 가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문권화-

처음엔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에 부담을 느끼며 왔는데 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며 즐겁고 뿌듯한 마음으로 항상 집에 가곤했어요. 부족한 솜씨인데도 항상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뵈며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겠다는 생각으로 오곤했습니다. -김희선-

현장학습 체험기

편 지 현(청담고등학교 비즈니스복지과 1-3)



나는 복지관련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지난 2012년 12월 20일에 서울에 위치해 있는 혜명양로원에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체험학습을 다녀오기 전 담임선생님께서 우리학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체험학습 간다고 우리에게 전달했을 때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 이유로는 양로원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배변을 치우고, 점심때가 되면 음식을 나눠 드리는 활동을 하게 되며, 그러한 시설은 아무리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작고 낡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은 잘못된 기우였다는 것을 당일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최신식 시설의 대형 양로원은 아니었지만 규모가 제법 크고 새 건물처럼 깨끗하고 편안한 가정집 분위기를 연상할 만큼 이곳이 정말 양로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넓고 쾌적한 곳이었다.

양로원 현황설명을 들으며 이곳에 와서 정작 양로원의 기능만 알고, 노인 분들의 삶 속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가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잠시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점심 먹고 나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는 담당선생님 말씀에 우리는 다시 신이 났다.

미션은 3인 1조가 어르신 한분을 만나 자기소개하고 드시고 싶은거 하시고 싶은거 묻고, 함께 손잡고 노래 부르기, 안마, 발 씻겨 드리기였다. 나는 생전에 계셨던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함께 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만족해 하셨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뿌듯하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져 그 할아버지께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다고 말해 드리고 싶었지만 그만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그 할아버지께 그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해 드리고 싶다. 어떻게 미션을 끝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다음으로 어른들과 함께 색종이를 찢어서 붙이는 '모자이크' 시간이었다. 이번엔 빨간색에 꽃 모양이 박힌 니트를 입고 계신 할머니와 함께 했다. 그리고 피부도 하얗고 웃는 모습이 소녀 같아서 예뻐졌다. 할머니는 우리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색종이를 찢어 붙여서 깜짝 놀랐다. 지금은 모자이크를 함께한 할머니 성함은 기억나지 않지만 함께 나눈 이야기와 함께 웃었던 모습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할머니 건강히 오래사세요.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그날의 일정은 그렇게 끝났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버스를 탔다. 버스안에서 나는 내내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나의 인식을 바꾸게 한 곳, 제2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추억이 만들어져 담긴 곳, 나는 이번 혜명 양로원 방문체험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곳, 고마운 곳, 고마운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임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센터에서 불우한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한 행사에 참여하며 방향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도 알리고 싶다. 나에게 봉사의 시간을 통해 행복감을 갖게 해준 계기를 만들어 준 혜명양로원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가고 싶다.

혜명한마당



| 대통령선거 |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하기 위해 입소어르신들이 가까운 투표소까지 걸어서 혹은 앙로원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다녀오셨습니다.



| 영정사진 촬영 |

12월15일 뿌리 깊은 나무에서 어르신들 영정사진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은 한복을 할아버지들은 양복을 입고 예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청담고 현장학습체험 |

12월달에 6회에 걸쳐 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담고등학교 비즈니스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현장학습체험을 다녀갔습니다. 180여명의 학생이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와 미술활동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 박원순시장님 방문 |

12월20일 아침배식을 돕기위해 박원순시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오전 6시40분에 오셔서 아침식사를 나눠주시고 어르신들과 즐거운 대화로 화기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아코디언 연주 |

12월12일 아코디언 연주단이 오셔서 흥겨운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간식까지 준비하여 주셔서 어르신들이 맛있게 나눠 드시며 연주를 들었습니다.



| 실버연극단 방문 |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과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몇 개월에 걸쳐 연습한 환경에 관련된 연극을 즐겁게 관람하였습니다.



| 물리치료 |

정간난 어르신들의 하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보행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올바른 보행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보행훈련을 하고 있다.



| 생활지도원 |

가산동 명동 칼국수 식당 사장님의 초대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방문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 영양사 |

12월 30일 정년퇴직을 앞둔 문금자조리원이 입소하여 계신 어르신들에게 갈비찜과 딸기를 대중공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해명동정



시설개요

- 시설명 : 해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근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 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직원현황

- ▶ 총 17명
- 원장 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5명 / 물리치료사 1명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현재 입소인원 (12월 31일 기준)

- ▶ 총 60명 할아버지 : 25명 할머니 : 35명

• 직원 정년퇴직

오랜세월 함께한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진관 사무국장 정년퇴직(15년 근무)
윤춘옥 간호사 정년퇴직(21년 근무)
문금자 조리원 정년퇴직(18년 근무)



자원봉사자

2012년 10월 1일 ~ 12월 31일

이승희, 민경숙, 소미숙, 한상애, 이양숙, 황옥경(일그림색칠화사회), 문덕녀, 박소선(대림미용실),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조규용, 김용기, 유만수(한방침술봉사팀), 오정은(건강체조), 백련사울림회, 오정자, 한미옥, 김동진, 차현섭, 조혜숙(아코디언), 박미란(말벗), 김동섭, 최지현, 한은옥, 남미영, 최소희, 윤정빈(우담바라), 소미숙, 김미정, 이정순, 이유희, 박계남, 정선연(민들레모임), 이강택, 임효정, 한미옥, 김남숙, 김옥심, 김영미, 황영미, 허추자(알송달송구연동화), 신숙례, 전옥선, 고준자, 박광예, 이원자, 이득남, 김영미, 이정조, 임태경(자비나눔예술봉사단), 박상근외 4명(메아리에술공연단), 성낙권, 박종보, 손선희, 백영일, 조용대(삼은회), 김소연(행복날개수련원), 오윤정, 한선정, 정다운(통일여고)

후원자

후원물품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도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입소자지인, 백련사, 한승주, 김정상, 보덕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화요가락회, 시흥초1학년(문정애님), 서서울생활과학고, gs리테일, 독지가, 이윤분, 삼막사신도님들, 혜명회(찬불가), 흥사랑 금천푸드뱅크, 국승호, 이정목, 이지준, 임명선, 삼화양행, 인천보살님, 희망마차, 알송달송공연팀, 명동갈국수(가산동), 삼진섬유, 서울남부교도소, 유맥회, 흥인기, 임호순, 뿌리깊은나무

후원금품

윤재순 90,000	박성수 90,000	최형기 30,000	권기상 150,000	문금자 530,000	구봉순 30,000
이정호 10,000	이종민 10,000	김기석 15,841,570	한태규 100,000	김연숙 80,000	한진택 300,000
조관우 2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60,000		백승풍 60,000	이복자 20,000	박혜정 30,000
양보금 30,000	안호주 600,000	보명사 200,000	박기완 90,000	백련사 500,000	마희전 80,000
복천선원 500,000	박세진30,000	이순자 60,000	구충수 300,000	임옥수 300,000	이명희 30,000
박두영 300,000	구수미 300,000	황준순 15,000	황재욱 15,000	박영자 40,000	조방희 15,000
박성자 15,000	이마트 1,840	기업은행 남중지역본부 900,000		한미옥20,000	김민정 20,000
이상현 10,000	서울특별시 500,000	(주)한국거래소 600,000		청담고등학교	3,726,000
청담어린이집 102,490	한광철 50,000	이의인박경애90,000		서울남부교도소 20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지로번호 : 7655940
-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예금주 : 해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해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해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마을 버스 1번 범일운수중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중점 하차
신림역 5413번, 5525번 중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해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